

李白의 <夏日奉陪司馬武公與群賢宴姑熟亭序>와 <江夏送林公上人遊衡嶽序>역해

趙得昌·趙成千*

<목 차>

1. 서론
2. 본론
 - 2.1 夏日奉陪司馬武公與群賢宴姑熟亭序(여름에 司馬이신 武幼成을 받들어 모시고 여러 현자들과 姑熟亭에서 연회를 하며 글을 쓰노라)
 - 2.2 江夏送林公上人遊衡嶽序(江夏에서 고승 林公이 衡山으로 유람가는 것을 전송하며 글을 쓰노라)
3. 해설 및 결론

1. 서론

현존하는 李白의 散文은 모두 67편(賦 포함)과 <雜題四則>이다.¹⁾ 그의 산문을 문체로써 보면, 書表序記, 頌讚銘碑, 祭文辭賦이다. 이백의 산문은 그의 삶과 사상을 고증하고, 시를 이해하는데 보조 자료가 되며, 그의 문학사상 및 예술세계를 조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이백에 대한 연구는 시 작품에 대한 연구 및 번역에 치중되어, 그의 산문에

* 協成大學校 中國通商·文化學科 副教授(主著者), 乙支大學校 教養學部 助教授(交信著者 szzhao@hanmail.net)

1) 中華書局的 王琦注 《李太白全集》에는 <比干碑>와 <雜題四則>이 따로 수록되어 있는데, <比干碑>는 <全唐文>에서는 李翰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어 학위논문으로는 1997년에 발표된 <李白散文研究> 1편에 불과하며, 소논문 역시 희소한 편이며, 특히 연구의 기초가 되는 역해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중국의 경우, 詹鍔 主編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 郁賢皓 校注 《李太白全集校注》는 校記·註釋으로 괄목할만하지만 국내 연구자들이 참고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이에 필자는 이백 산문 전편을 역해하여, 국내외 이백 연구에 중요 참고자료가 되게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동안 表3편, 書4편, 序2편 총9편²⁾에 대한 역해연구를 진행하여 완성하였다.

본고에서는 序에 대한 역해연구로 <夏日奉陪司馬武公與群賢宴姑熟亭序> · <江夏送林公上人遊衡嶽序> 2편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가 축적되어 결실을 맺는다면, 국내외 이백 산문에 대한 첫 역해 성과가 되고, 이백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원문, 校記, 번역, 주석, 해설의 형식을 취한다. 원문은 '宋蜀本'을 위주로 하고, 校記에서는 詹鍔 등의 기존 연구 성과를 수록하면서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밝힌 것을 추가한다. 번역은 독자해석을 지향하되, 의미의 원활과 순통을 위해서 의역을 한다. 주석은 자구 풀이는 물론 관련 用例, 典故 등을 들어 그 원문을 제시하고 번역함으로써 학술성을 높인다. 또한 기존 연구를 수용하면서 연구자의 새로운 성과를 추가한다. 해설에서는 창작연대, 작품의 해제, 역대평론, 작품의 특성 및 예술성취 등을 고찰한다.

본 연구는 詹鍔 主編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을 기본으로 하고, 王琦 注 《李太白全集》, 瞿蛻園·朱金城 校注 《李白集校注》, 安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 牛寶彤 主編 《李白文選》, 郁賢皓 校注 《李太白全集校注》 및 郁賢皓 註釋 《新譯李白文集》 등을 참고로 한다.

2) 表3편: <爲吳王謝賁赴行在遲滯表> · <爲宋中丞請都金陵表> · <爲宋中丞自薦表>, 書4편: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 · <上安州李長史書> · <與賈少公書> · <爲趙宣城與楊右相書>, 序2편: <暮春於江夏送張祖監丞之東都序>와 <奉饒錢十七翁二十四翁尋桃花源序>.

2. 본론

2.1 夏日奉陪司馬武公與群賢宴姑熟亭序³⁾

(여름에 司馬이신 武幼成을 받들어 모시고 여러 현자들과 姑熟亭에서 연회를 하며 글을 쓰노라)

通驛公館南有水亭焉。⁴⁾ 四薨翬飛,⁵⁾ 巖絕浦嶼。⁶⁾ 蓋有前攝令河東薛公棟而
字之,⁷⁾ 令宰隴西李公明化,⁸⁾ 開物成務,⁹⁾ 又橫其梁而閣之。¹⁰⁾ 晝鳴閑琴, 夕酌清

- 3) 夏日: 天寶14년(755) 여름을 말한다. ○司馬武公: 司馬는 관직 이름. 唐代的 州·郡의 佐吏(보좌관리)로 그 지위는 別駕·長史의 아래에 있었다. 武公은 武幼成으로 당시 宣州의 司馬였는데, 이백의 <趙公西候新亭頌>에서는 그를 “사마 武幼成 공은 명문세족의 걸출한 인재(司馬武公幼成, 衣冠之髦彥)”라고 하였다. 본 문장에서는 “司馬 武幼成은 재주가 높고 옛날 일에 통달하여 그 명성이 세상 밖으로 매우 빛났다(司馬武公, 長材博古, 獨映方外.)”라고 하였다. ○姑熟亭: 亭이름. 원래는 當塗縣城(지금의 安徽省 당도현西街) 彩虹橋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리와 정자가 모두 없어졌다. <江南通志>(清代 黃之雋·趙宏恩 등이 간수)에서는 “太平府의 當塗縣에는 采虹橋 즉 下浮橋가 있는데, 唐의 李陽冰이 정자를 그 위에 세웠고 李白이 그것에 관한 서를 쓰고 姑熟亭이라 이름 하였다. 대개 蕪湖로 가는 길이다(太平府當塗縣有采虹橋, 卽下浮橋, 唐李陽冰建亭在其上, 李白序之, 名姑熟亭, 蓋走蕪湖道也.)”라고 하였는데, 李陽冰이 고숙정을 세웠다는 것은 잘못이다. 본 서문에 의거하면, 이 정자는 당도현의 대리현령인 薛公이 세웠고, 天寶 연간에 당도 현령 李明化가 증수하였다. 정자는 처음에는 이름이 없었다. 천보 14년(755) 여름, 宣州의 司馬 武幼成이 현인들을 데리고 정자에서 연회를 가졌는데, 이백이 이 때 참석하였다. 연회 자리에서 武幼成이 “이 정자는 姑孰溪를 넘어간다(此亭跨姑熟之水)”라고 하였기 때문에 ‘姑熟亭’이라 하였다. 이백은 그 일을 기록하고 이 서문을 썼다.
- 4) 通驛: 사통팔달의 驛站. ○公館: 관부가 지은 館舍로, 역참에 왕래객을 맞이하며 머물러 숙박하게 하는 館所. ○水亭: 姑熟亭
- 5) 薨: 용마루. ○翬飛: 훨훨 날다. <詩經·小雅·斯干>의 “용마루는 새가 깃을 펼친 듯, 처마는 새가 날아오르는 듯(如鳥斯飛, 如翬斯飛.)”에 그 용례가 있다. 孔穎達의 疏에서는 “용마루의 기세가 새가 나는 것과 같다(檐阿之勢, 似鳥飛也.)”라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姑熟亭이 높고 화려함을 형용하였다.
- 6) 巖絕: 깎아지른 듯이 높고 험하다. ○浦嶼: 물속에 진흙과 모래가 쌓여 작은 섬과 같이 된 높은 지대.
- 7) 前攝令: 전임 대리 현령. ○薛公: 성은 설, 이름은 자세하지 않으며 河東(지금의 山西일대) 사람. ○棟而字之: ‘棟’과 ‘字’는 모두 동사로 사용되었는데, 각각 ‘마룻대를 올린다’, ‘처마를 만들다’의 뜻이다.
- 8) 宰: 현령. ○李公明化: 乾隆15年(1750)의 <當塗縣志>에 의거하면, 李明化는 隴西(지금

月.¹¹⁾ 蓋爲接輶軒,¹²⁾ 祖遠客之佳境也.¹³⁾

<校記>

[제목]: '陪'자가 宋本에는 '倍'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제목]: '奉'자가 郭本¹⁴⁾ · 劉本¹⁵⁾ · 王本¹⁶⁾ · 全唐文¹⁷⁾에는 없다.

[제목]: '熟'자가 咸本에는 孰으로 되어 있다.

[令宰]: '令'자가 咸本¹⁸⁾ · 郭本¹⁹⁾ · 劉本²⁰⁾ · 王本²¹⁾ · 全唐文²²⁾에서는 모두 '令'으로 되어 있다. 앞의 '前攝令'과 대비, 李明化가 천보연간의 당도현령을 역임한 점 등에 근거하면 令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의 甘肅省 일대) 사람으로 天寶연간에 당도현령을 역임. 이름은 有則이고, 明化는 자.

- 9) 開物成務: 천하의 사물을 개통시키고 사업을 성취시키다. 이 말은 《周易·繫辭上》에서 “역이란 만물의 이치를 통달하여 천하의 사무를 성취시키는 것으로 천하의 모든 도를 포괄하는 것이다(夫《易》, 開物成務, 冒天下之道.)”라고 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孔穎達의 疏에서는 “易이란 만물의 뜻을 통달하게 할 수 있고, 천하의 사무를 성취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言《易》能開通萬物之志, 成就天下之務.)”라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정자의 이치를 통달하고 정자를 증수, 확장한 업무를 성취한 것을 말한다.
- 10) 橫其梁而閣之: 들보를 질러 놓고 문실주를 세우다. 閣은 동사로 사용되었다. “開物成務, 橫其梁而閣之” 이 두 문장은 이 정자를 설공이 먼저 건축하였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후에 이 명화가 이어 증수하고 확장하여 완성한 것을 말한다.
- 11) 晝鳴閑琴, 夕酌淸月: 낮에는 한가로운 거문고(閑琴)를 타고, 저녁에는 청명한 달(淸月)을 벗하여 술을 마신다. 옥현호는 이 구를 “낮에는 한가롭게 거문고를 타며 다스리고, 저녁에는 청정하게 술을 마시며 달을 감상하다”라고 하였다.
- 12) 輶軒: 사신이 타는 輕車. 여기에서는 사신을 가리킨다.
- 13) 祖: 멀리 떠나는 나그네를 위한 전별. 원래 길을 떠나기 전에 路神에게 드리는 제사의 일종이었으나 나중에 전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14) 《四部叢刊》을 영인한 郭雲鵬의 《分類補注李太白詩》 30卷.
- 15) 明萬曆40年(서기 1612년) 劉世教의 《合刻分體李杜全集》 중 《李翰林全集》 42卷.
- 16) 乾隆間(서기 1736년~1796년)에 출판된 王琦가 주석을 한 《李太白文集》 36卷 및 1977년 中華書局的 조판본 《李太白全集》.
- 17) 中華書局에서 영인한 淸 禦製 《全唐文》.
- 18) 明鮑松이 編한 正德八年(서기 1513년) 自刻本 《李杜全集》 83권 중의 《李翰林集》 30卷.
- 19) 《四部叢刊》을 영인한 郭雲鵬의 《分類補注李太白詩》 30卷.
- 20) 明萬曆40年(서기 1612년) 劉世教의 《合刻分體李杜全集》 중 《李翰林全集》 42卷.
- 21) 乾隆間(서기 1736년~1796년)에 출판된 王琦가 주석을 한 《李太白文集》 36卷 및 1977년 中華書局的 조판본 《李太白全集》.
- 22) 中華書局에서 영인한 淸 禦製 《全唐文》.

當塗縣 사통팔달의 역참 관사 남쪽에는 물 위에 지은 정자(水亭) 하나가 있다. 그 정자는 네 용마루가 훨훨 나는 듯 하며 물 속 작은 섬 높은 곳에 위치하여 깎아지른 듯이 높고 험준하다. 이것은 대개 전인 대리현령이었던 河東의 薛公이 마룻대를 올리고 처마를 만들었으며, 지금의 현령 隴西의 李明化는 정자의 이치를 통달하고 증수하여 또 들보를 질러 넣고 문설주를 세웠다. 그는 낮에는 한가로운 거문고를 타고, 저녁에는 청명한 달을 벗하여 술을 마신다. 이 곳은 사자를 접대하고 멀리 떠나는 나그네를 전별하는 훌륭한 곳이다.

製置既久,²³⁾ 莫知何名. 司馬武公, 長材博古,²⁴⁾ 獨映方外.²⁵⁾ 因據胡床,²⁶⁾ 岸幘嘯詠,²⁷⁾ 而謂前長史李公及諸公曰²⁸⁾ : “此亭跨姑孰之水,²⁹⁾ 可稱爲‘姑熟亭’

23) 製置: 세우다, 건설하다.

24) 長材: 高才, 英才, 俊才의 뜻으로 長才로 쓰기도 한다. 《晉書·劉琨傳》에 “당시에 司馬越의 幕府에는 三才가 있었는데, 潘滔가 大才, 劉興가 長才, 裴邈이 清才였다(時稱越府有三才: 潘滔大才, 劉興長才, 裴邈清才.)”라고 하였다. 潘滔는 자가 陽仲, 滎陽中牟(지금의 河南 中牟縣)사람, 西晉의 대신, 太常인 潘尼의 조카. 劉興(265년~311년)는 자가 慶孫, 中山 魏昌(지금의 河北 無極縣)사람, 서진의 대신, 司空인 劉琨의 형. 裴邈은 자가 景聲, 河東 聞喜(지금의 山西聞喜縣)사람, 晉의 대신이며 서예가.

25) 方外: 세속의 밖. 《莊子·大宗師》의 “공자가 말하길 ‘그들은 이 세상 밖에서 노니는 사람 들이고, 나는 세상의 안에서 노니는 사람이다’(孔子曰: ‘彼遊方之外者也, 而丘遊方之內者也.’)”에 그 용례가 있다.

26) 胡床: 접이식 의자. 交床, 交椅, 繩床라고도 한다. 胡床은 끈을 엮어 만들었으며 접을 수 있고 휴대가 간편했다. 황실 귀족이나 사대부들이 외유, 수렵을 나갈 때 이 의자를 가지고 가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앉아서 쉬었다. 북방 지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렀다. 그 용례가 《三國志·魏書·武帝紀》의注에서 인용한 바의 <曹瞞傳>에 있다. “曹操가 장차 황하를 건너려고 할 때 앞의 부대는 신속하게 건넜는데, 馬超 등이 갑자기 들이닥쳐어도 조조는 그대로 胡床에 앉아 일어나지 않았다. 張郃 등이 사대가 급함을 알고서 함께 조조를 끌고서 배 안으로 들어갔다.(公將過河, 前隊適渡, 超等奄至, 公猶坐胡床不起. 張郃等見事急, 共引公入船.)”

27) 岸幘: 두건을 높이 올려 써서 이마를 드러나게 하다. 몸에 입는 옷이나 쓰는 두건 등을 자유롭게 하면서 구수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幘’은 두건을 말한다. 그 용례가 《世說新語·簡傲》에 있다. “桓溫이 서주자사에 임명되고……일마 되지 않아 謝奕을 사마로 임명하였다. 謝奕이 荊州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환온과의 오랜 우정을 매우 중시하여, 환온에게 객이 되어서도 두건을 아무렇게나 쓰고 길게 휘파람 불고 노래하며 이전과 별로 다름이 없이 행동하였다. 이에 환온이 매번 ‘나의 세속 밖의 사마이다’라고 하였다.(桓宣武作徐州……俄而引奕爲司馬, 奕既上, 猶推布衣交, 在溫坐, 岸幘嘯詠, 無異常日. 宣武每曰: ‘我方外司馬.’)”

28) 前長史李公: 전 長史인 李公으로 천보8년(479)에 宣州 장사를 맡았던 李昭를 말한다. 천보14년에 그는 이미 관리 직무를 떠났기에 ‘前長史’라고 하였다. ○長史: 관직 이름. 唐代

焉。”嘉名勝概,³⁰⁾自我作也.

<校記>

[姑孰]: ‘熟’이 咸本에는 ‘孰’으로 되어 있다.

이 정자를 세운 지 이미 오래 되었지만,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몰랐다. 宣城郡의 司馬 武幼成은 재주가 높고 옛날 일에 통달하여 그 명성이 세상 밖으로 매우 빛났다. 접이식 의자에 기대어 두건을 높이 올려 쓰고서 시를 읊조리고는, 전임 선성군 長史 李昭 및 기타 여러 공들에게 “이 정자는 姑孰溪에 걸쳐 있으니 ‘姑孰亭’이라 할만하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아름다운 이름과 훌륭한 경치가 우리로부터 만들어지게 되었다.

且夫曹官紱冕者,³¹⁾大賢處之,³²⁾若遊青山·臥白雲, 逍遙偃傲,³³⁾何適不可? 小才居之, 窘而自拘,³⁴⁾悄若桎梏,³⁵⁾則清風朗月,³⁶⁾河英嶽秀,³⁷⁾皆爲棄物,³⁸⁾安得稱焉?³⁹⁾所以司馬南鄰,⁴⁰⁾當文章之旗鼓⁴¹⁾; 翰林客卿,⁴²⁾揮辭鋒

에 州의 刺史아래 長史를 설치하였는데, 從五品에 해당한다.

29) 姑孰之水: 姑孰溪를 말한다. 또 姑孰河·姑浦라고 하는데 丹陽湖에서 기원하여 姑孰城(지금의 안휘성 當塗縣)의 남쪽을 흘러 지나 서쪽으로 장강에 흘러 들어간다.

30) 嘉名: 아름다운 이름. ○勝概: 훌륭한 경치. ‘勝槩’로도 쓴다.

31) 且夫: 문장 첫 머리에 사용되어 ‘더 나아가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발어사. ○曹官: 군현의 관료. ○紱冕: 원래는 官印을 메는 끈과 관모였으나, 나중에는 벼슬하는 사람을 말하였다. 《文選》 권1 班固 <西都賦>의 “제지가 출중한 사람이 많은 지역으로, 벼슬하는 사람이 나오는 곳이다(英俊之域, 紱冕所興.)”에 그 용례가 있다. 李善은 “<蒼頡篇>에 ‘紱은 綬(인 끈)이다’라고 하였다(<蒼頡篇>曰: ‘紱, 綬也.’)”라고 주를 달았고, 또한 “《說文解字》에 ‘冕은 大夫 이상의 冠이다’라고 하였다(《說文》曰: ‘冕, 大夫以上冠也.’)”라고 주를 달았다.

32) 大賢: 재덕을 겸비한 사람. ○之: 관원의 지위.

33) 偃傲: 고고하게 얼굴을 쳐들고 눕다.

34) 窘: 곤궁.

35) 悄: 완전히 ○桎梏: 형구. 발에 족쇄(鑿), 손에 쇠고랑(鑿)을 차는 것을 말한다.

36) 朗月: 명월

37) 河英嶽秀: 강과 산이 아름답고 빼어나다.

38) 棄物: 버려도 되는 쓸데없는 물건. 《老子》 27장에 “성인은 항상 사람을 잘 구제하여 그들을 버림이 없고, 사물을 잘 구하여 사물을 버림이 없다(聖人, 常善救人, 故無棄人. 常善

以戰勝.⁴³⁾ 名教樂地,⁴⁴⁾ 無非得俊之場也.⁴⁵⁾ 千載一時,⁴⁶⁾ 言詩紀志.

나아가 군현 관원의 지위에 재덕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청산을 유람하고 흰 구름에 눕고 소요하며 고고한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어디를 가더라도 안 되는 곳이 있으리요? 그러나 재덕이 낮은 사람이 있으면, 곤궁하고 자기를 구속하여 완전히 족쇄와 쇠고랑을 차는 것과 같으니, 청풍명월과 화려강산이 모두 쓸데없는 것이 되니 어떻게 서로 걸맞겠는가? 그래서 司馬인 武幼成이 연회석상에서 남쪽에 이웃하여 앉아, 문장을 짓는 선봉이 되었다. 이에 좌석에 앉아있는 문인들은 각자 필봉을 휘둘러 승부를 겨루었다. 이 연회 또한 명교가 베풀어지는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고, 詩才를 드러냄으로써 인재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이것은 천재일우의 기회이니, 시를 지어 이 일을 기재한다.

救物, 故無棄物.)라고 하였다.

39) 稱: 서로 걸맞다.

40) 司馬: 宣城郡의 司馬 武幼成. ○南鄰: 사마무공이 이백의 남쪽에 이웃하여 앉아 있다.

41) 旗鼓: 원래는 군대에서 지휘, 호령하는 용구이나 이 글에서는 문장을 짓는데 선봉이 됨을 뜻한다.

42) 翰林客卿: 연회석에 시문을 짓는 사람. 제목의 群賢과 같은 뜻. 揚雄은 <長楊賦序>에서 “때문에 翰林으로 주인을 삼고, 子墨으로 객경을 삼아 풍간을 한다(故藉翰林以爲主人, 子墨爲客卿以諷).”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翰林, 子墨은 辭人, 墨客을 가리킨다. 子墨은 양웅의 작품 가운데에서 허구의 인물이다. 이로써 문장, 문사를 가리킨다.

43) 辭鋒: 필봉. 뛰어난 문장. ○戰勝: 우세를 다투다. 우열을 겨루다.

44) 名教樂地: 예교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는 곳. <世說新語·德行>에 “王平子(王澄), 胡毋彥國(胡毋輔之)과 같은 여러 사람들은 모두 본성대로 하고 방종하는 것으로 최고경지를 삼았는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체로 다니기도 하였다. 樂廣이 웃으면서 말하길, ‘예교 가운데 자연히 사람들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는데 어찌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王平子·胡毋彥國諸人, 皆以任放爲達, 或有裸體者. 樂廣笑曰: ‘名教中自有樂地, 何爲乃爾也?’)”에 그 용례가 있다.

45) 得俊之場: 시재를 드러냄으로써 인재를 낼 수 있는 장소.

46) 千載一時: 천재일우와 같은 뜻.

2.2 江夏送林公上人遊衡嶽序⁴⁷⁾

(江河에서 고승 林公이 衡山으로 유람가는 것을 전송하며 글을 쓰노라)

江南之仙山, 黃鶴之爽氣,⁴⁸⁾ 偶得英粹, 後生俊人.⁴⁹⁾ 林公世爲豪家,⁵⁰⁾ 此土之秀. 落髮歸道,⁵¹⁾ 專精律儀.⁵²⁾ 白月在天,⁵³⁾ 朗然獨出.⁵⁴⁾ 旣灑落於彩翰,⁵⁵⁾ 亦諷詩於金口.⁵⁶⁾

47) 江夏: 옛 지명으로 지금의 武漢市 江夏區이다. ○林公上人: 성이 林氏인 승려. ○上人: 불교에서는 지덕을 갖춘 승려를 높여서 上人이라고 지칭하였는데, 남조의 송 이래로 승려에 대한 존칭어로 사용되었다. 이 글에서 '世爲豪家'라고 한 걸로 보아 권문세가 출신임을 알 수 있다. ○衡嶽: 衡山. 고대에는 5嶽의 하나로 南嶽이라고 칭하였는데, 그래서 衡嶽이라고 하였다.(郁賢皓, 《新譯李白文集》, 三民書局, 2017, 195쪽) 지금의 湖南省 衡山縣 서쪽에 있다.

48) 黃鶴: 산 이름. 黃鶴山이라하기도 한다. 지금의 무한시 蛇山을 말한다. 유명한 황학루가 이 산에 있다. 《元和郡縣志》 권27 '江南道鄂州江夏縣'에서는 "황학산은 현의 동쪽으로 9리 떨어진 곳에 있다(黃鶴山, 在縣東九里.)"라고 하였으며, 《方輿勝覽》 권28에서는 "황학산은 일명 黃鶴山이라고 하는데, 江夏縣의 동쪽으로 9리 떨어진 곳에 있다. 현의 북서쪽으로 2리 떨어진 곳에 黃鶴磯가 있다(黃鶴山, 一名黃鶴山, 在江夏縣東九里, 去縣西北二里有黃鶴磯.)"라고 하였다. 《南齊書·州郡志》에 의하면 신선 子安이 황학을 타고 이 산을 지나갔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황학산이라고 이름지어졌다고 한다.(郁賢皓, 같은 책, 195쪽). 이 글에서 '江南之仙山'이라고 한 것은 이 전설과 관련이 있다. ○爽氣: 청신하고 상쾌한 기운.

49) 英粹: 정화와 순수. ○俊人: 준걸.

50) 豪家: 돈 있고 권세 있는 집안.

51) 落髮: 머리 깎고 출가하다.

52) 律儀: 불교에서 승려가 준수해야 할 계율과 준칙.

53) 白月: 白分, 白半이라고도 한다. 인도의 역법에는 초하루부터 보름 까지를 白月이라고 하고, 보름 이후부터 그믐 까지를 黑月이라고 한다. 《宿曜經》 위에서 "무릇 달은 흑과 백 두 가지로 나뉜다. 1일부터 15일까지를 白月分이라고 한다(凡月有黑·白兩分. 從一日至十五日爲白月分.)"라고 하였다. 王琦는 "이 글에서 말한 白月은 보름달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此文所云白月, 則指滿月而言也.)"라고 하였다.

54) 朗然: 빛나는 모양.

55) 灑落: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린다. ○彩翰: 彩筆, 붓.

56) 金口: 불교용어로 석가모니의 입.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의 입과 혀는 金剛처럼 견고하다고 하여, 金口라고 칭한다. 《華嚴經》의 "하물며 여래불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何況如來金口所說.)"에 그 용례가 있다. "諷詩於金口"에 대하여 첨영, 육현호 등은 "불경에 조예가 깊다", "입으로 불경을 읊조리는 데 잘하였다"고 하였다.

<校記>

[제목]: 文粹⁵⁷⁾에서는 ‘上人’이 없다.

[諷詩]: ‘詩’가 咸本·郭本·劉本·文粹·王本·全唐文에서 ‘誦’으로 되어 있다.

[金口]: ‘金’이 咸本·郭本·劉本·王本·全唐文에서 ‘人’으로 되어 있다.

강남의 신선산인 黃鶴山은 청신하고 상쾌한 기운이 있다. 때문에 우연히 정화와 순수의 결정을 얻어서 뛰어난 인재를 낳았을 것이다. 林公은 대대로 부호 출신으로 이 지역에서 뛰어난 인재이다. 그는 삭발하고 불도에 귀의하여 불교의 계율과 준칙을 전심으로 연마하였다. 마치 하얀 달이 하늘에 걸려 홀로 환한 것 같았다. 붓으로는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글을 썼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입으로는 불경을 잘 읊조렸다.

閑雲無心,⁵⁸⁾ 與化偕往.⁵⁹⁾ 欲將振五樓之金策,⁶⁰⁾ 浮三湘之碧波,⁶¹⁾ 乘杯泝流,⁶²⁾ 考室名嶽.⁶³⁾ 瞰憩冥壑,⁶⁴⁾ 凌臨諸天.⁶⁵⁾ 登祝融之峯巒,⁶⁶⁾ 望長沙之煙

57) 《四部叢刊》에서 영인한 明 嘉靖本《唐文粹》.

58) 閑雲無心: 뜬 구름처럼 무심히 떠다니다. 陶淵明 <歸去來辭>의 “구름은 무심히 산의 굴에서 피어오르고, 새는 날다 지쳐 돌아올 줄 아네(雲無心以出岫, 鳥倦飛而知還.)” 및 李白 <送韓準裴政孔巢父還山>의 “때때로 어찌다 흥이 오르고, 종종 구름처럼 무심히 떠다니네(時時或乘興, 往往雲無心.)”에 그 용례가 있다.

59) 化: 자연, 자연계. 《素問·五常政大論》에 “化는 인위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化不可代.)”라고 되어 있는데, 그 注에 “化는 자연을 일컫는다(化, 謂造化也.)”라고 하였다.

60) 五樓: 郁賢皓는 지명 혹은 절 이름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郁賢皓, 같은 책, 196쪽) 《後漢書·光武帝紀》에 “五樓, 富平, 獲索 등이 각각 부곡민을 거느렸는데, 무리가 수백만 명이었다(五樓, 富平, 獲索等, 各領部曲, 衆合數百萬人.)”라고 하였는데, 李賢이 여기에 “여러 반역자들 중 개중에는 산천토지로 이름을 삼는 경우가 있었다(諸賊或以山川土地爲名)”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번역자는 여기에서 지명으로 생각하고 번역하였다. ○金策: 錫杖, 수행승의 지팡이. 높이가 보통 눈썹까지 되며, 머리 부분에 주석으로 된 큰 고리가 있고, 거기에 여섯 개의 작은 고리가 끼워져 있어 짐승이나 해충을 쫓을 때나 길을 가거나 걸식할 때 흔들어서 소리를 낸다. 王琦는 “金策은 석장이다(金策, 錫杖也.)”라고 하였다. 李白 <別山僧>의 “날이 밝자 나와 헤어져 산에 오르며, 손에 석장 잡고 구름 속 돌 비탈길 밟구나(平明別我上山去, 手携金策踏雲梯.)”에 그 용례가 있다.

61) 三湘: 湖南省 안에 있는 湘江의 세 지류인 瀟湘, 沅湘, 資湘이다. 여기에서는 호남성 안에 있는 여러 강을 가리킨다.

火. 67) 遙謝舊國, 68) 誓遺歸蹤. 69) 百千開士, 70) 稀有此者.

<校記>

[考室] ‘考’가 陸本⁷¹⁾에서 ‘老’로 되어 있는데, 詹鐸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든 구름처럼 무심히 떠다니며, 자연과 더불어 왕래하였다. 지금 五樓 땅에서 鋤杖을 휘두르려 하고 三湘의 푸른 물결에서 떠돌고자 한다. 배를 타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고, 명악인 衡山에 거처를 짓고자 한다. 깊은 산골짜기를 내려다 보며 쉬고, 붙잡고 올라가면 하늘에 닿을 듯하다. 衡山の 최고봉 祝融峰에 올라 長沙의 인가를 바라본다. 멀리서 고향과 이별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로

- 62) 乘杯: 나무로 만든 잔을 타다. 스님 杯渡[역주: 晉 宋 때의 승려]가 나무 잔을 타고 물을 건넜다는 전설이 있다. 《太平廣記》 권 90에 “杯渡란 자는 성과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다. 항상 나무로 만든 잔을 타고 물을 건너서 그렇게 불리어졌다. 당초에 冀州에 있으면서 세세한 행실을 닦지 않았는데도神通력이 탁월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 연유를 알지 못하였다(杯渡者, 不知姓名, 常乘木杯渡水, 因而爲號. 初在冀州, 不修細行, 神力卓越, 世莫測其由.)”라고 하였다. 후에 승려가 출행하는 것을 일컬어 ‘杯渡’ 혹은 ‘杯度’라고 하였다. 본 문장에서는 ‘배를 타다’라는 의미이다. ○泝: 거슬러 올라가다.
- 63) 考室: 원래는 궁실 축성의 예를 일컬었으나 이후에는 땅에 집을 짓는 것을 가리킨다. 詹鐸은 “석실을 찾다”라고 해석하였다. 《初學記》 권5 “衡山에 石困이라고 하는 한 봉우리가 있는데, 아래에는 석실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항상 글을 읽고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렸다(衡山一峯名石困, 下有石室, 中常聞諷誦聲.)”에 관련 내용이 있다. ○名嶽: 衡山을 가리킨다.
- 64) 冥壑: 깊은 산골짜기.
- 65) 諸天: 불교용어로 모든 하늘을 가리킨다. 불교에서는 하늘이 육계의 六欲天, 색계의 十八天, 무색계의 四天 등 여덟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여러 하늘들은 마음을 수양하는 경계를 따라 나뉘어 있으며 諸天은 이 여덟의 모든 하늘을 말한다.
- 66) 祝融之峯: 형산 72봉 중의 최고봉인 축융봉. ○祝融: 중국 전설 상의 火神. 淸 李元度가 重刊한 《南嶽志》 권5에 “祝融峯은 높이가 9,730길이 된다. 《名勝志》에 “祝融峯은 72봉 중 가장 높다. 기록에 의하면 離宮을 두어 火德을 따랐는데, 바로 이곳이 축융이 노닐고 쉬는 곳이다라고 하였다(祝融峯, 高九千七百三十丈. 《名勝志》: “祝融峯乃七十二峯最高者. 記云, 位置離宮以應火德, 乃祝融君遊息之所.)”라고 하였고, 권6에서는 “祝融殿은 祝融峯 정상에 있는데, 祝融을 제사지냈다(祝融殿, 在祝融峯頂, 祀古祝融君.)”라고 하였다.
- 67) 煙火: 인가에서 불을 때어 나는 연기라는 뜻으로, 사람이 사는 기척 또는 인가를 이르는 말이다.
- 68) 舊國: 고향.
- 69) 遺: 버리다.
- 70) 開士: 보살의 이칭. 스스로 깨달음을 열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열 수도 있다고 해서 개사라 칭하였다. 여기에서는 승려에 대한 존칭어이다.
- 71) 明 正德14年(서기 1519년)에 陸元다가 간행한 《李翰林集》 10卷.

결심한다. 많고 많은 승려 중에 이와 같은 사람은 매우 적다.

余所以歎其峻節,⁷²⁾ 揚其清波.⁷³⁾ 龍象先輩,⁷⁴⁾ 迴眸拭視.⁷⁵⁾ 比夫汨泥沙者,⁷⁶⁾ 相去如牛之一毛.⁷⁷⁾ 昔智者安禪於台山,⁷⁸⁾ 遠公托誌於廬嶽,⁷⁹⁾ 高標勝

72) 峻節: 고상한 지조. 顏延之 <秋胡>의 “고상한 지조는 가을 서리와 이어지고, 밝고 아리따운 아침 해와 같구나(峻節貫秋霜, 明豔伴朝日.)” 및 李白 <贈從孫義興宰銘>의 “고상한 지조는 구름 낀 하늘과 이어지고, 다스림의 도리가 원대함을 알겠네(峻節貫雲霄, 通方堪遠大.)”에 그 용례가 있다.

73) 清波: 맑은 물결의 뜻으로 여기에서는 林公上人的 품성이 맑은 물의 물결처럼 깨끗함을 비유한다.

74) 龍象: 불교용어로 아라한 중에서 수행함에 있어 용맹하고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아라한. 용은 물에서 힘이 가장 세고, 코끼리는 물에서 힘이 가장 세기 때문에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에서는 고승을 비유한다. 이백 <贈宣州靈源寺仲澆公>의 “이 가운데에 용과 코끼리 같은 고승들이 모여 있는데, 유독 澆公이 우뚝 빼어나구나(此中積龍象, 獨許澆公殊.)”에 그 용례가 있다.

75) 迴眸: 뒤돌아 보다. ○拭視: 눈을 깨끗이 씻고 자세히 보다.

76) 汨: 어지럽히다. ○泥沙: 진흙과 모래. ○汨泥沙: ‘진흙과 모래를 어지럽히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시류를 따라 부침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楚辭·漁父>의 “어부가 말하기를 ‘성인은 사물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변화와 함께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흐리면 어찌하여 그 진탕을 회자어서 물결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들이 모두 취하였으면 어찌하여 그 지계미를 먹고 그 술을 마시지 않았는가? 무슨 이유로 깊이 생각하고 고상하게 행동하여 자신을 추방되게 하였는가?’라고 하였다(漁父曰: 聖人不凝滯於物, 而能與世推移, 世人皆濁, 何不瀉其泥而揚其波? 衆人皆醉, 何不餽其糟而飲其醞? 何故深思高舉, 自令放爲?)”에 그 용례가 있다.

77) 相去如牛之一毛: 九牛一毛처럼 하찮은 차이뿐이다. 서로 차이남이 아주 극소함을 비유한다.

78) 智者: 隋나라의 智顛禪師(538~598년)의 별호. 隋나라 開皇 11년(591년)에 ‘智者’의 호를 수여받았다. 자는 德安이며, 속성은 陳이다. 천태종의 개조로, 약 10년 동안 천태산에서 修養했다. 隋 煬帝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으며 隋나라 開皇 11년에 ‘智者’의 호를 수여받아 지자대사로 불리었다. ○安禪: 좌선하다. ○台山: 天台山. 지금의 浙江省 天台縣에 있다.

79) 遠公: 東晉의 高僧 慧遠(334년~416년). 廬山의 龍泉精舍와 東林寺에서 30여 년간 지내면서 산을 나온 일이 없었다 한다. <神僧傳> 권2에 “[승려 慧遠이] 羅浮山에 가다가 潯陽에 이르러 노산의 청정함을 보고 죽히 수양할 만하다고 여겨, 용천정사에 머무르기 시작하였다. 이곳은 원래 물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혜원이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며 말하기를 ‘만약 이 가운데서 살 수 있으려면, 썩은 땅에 샘물이 솟게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말이 끝나자, 맑은 물이 흘러 나와 깊이 파니 개울이 되었다. ……그래서 무리를 이끌고 도를 행함이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는데, 석가모니가 남기신 가르침이 이에 다시 일어난 것이었다. 혜원이 여산을 택하여 정주한 이래로 30여 년간 머물면서, 산을 나가지 않겠다고 표명하였는데, 그 발자취가 속세에 이르지 않았다. 매년 손님을 배웅하거나 유람할 때에는 항상 虎溪를 경계로 삼았다.(釋慧遠)欲往羅浮山, 及屆潯陽, 見廬峯清淨, 足以息心, 始住龍泉精舍, 此處去水本遠, 遠乃以杖扣地曰: ‘若此中可得栖立, 當使朽壤抽泉.’言畢, 清流引出, 浚以成溪. ……於是率衆行道, 昏曉不絕, 釋迦餘化, 於斯復興. 自遠卜居廬阜三十餘年, 彰不出山, 跡不入俗, 每送客遊屐常以虎溪爲界.”라고 하였다. ○廬嶽: 廬山.

概,⁸⁰⁾ 斯亦嚮慕哉!⁸¹⁾

<校記>

[余所以] ‘余’가 王本에서 ‘予’로 되어 있다.

[揚其] 송축본에서 ‘揚’을 ‘楊’으로 해 놓았는데, 詹鏞이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揚’으로 고쳐놓았다.

[龍象] ‘象’은 송축본에서는 ‘像’으로 되어 있고, 繆本⁸²⁾·咸本·郭本·王本·全唐文에서는 모두 ‘象’으로 되어 있다. 침영이 ‘象’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象’으로 고쳐 놓았다.

[迴眸] ‘眸’가 咸本에서 ‘日牟’로 되어 있는데, 침영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如牛] ‘如’가 文粹·咸本에서 ‘九’로 되어 있다.

나는 이런 이유로 그의 고상한 지조를 탄복해 하고, 그의 맑은 물결 같은 품성을 찬양한다. 이전의 고승들을 자세히 되돌아보며, 저 시류를 따라 부침했던 자들과 비교해보니 서로의 차이가 九牛一毛처럼 근소할 뿐이다. 옛날에 智顛禪師는 天台山에서 좌선을 하였고, 고승 慧遠은 廬山에 뜻을 기탁하였다. 고결하고 탈속적인 품격과 아름다운 경계에 있어서 이 林公도 그들처럼 사람들에게 동경심을 불러일으킨다.

紫霞搖心,⁸³⁾ 青楓夾岸,⁸⁴⁾ 目斷川上,⁸⁵⁾ 送君此行, 羣公臨流賦詩以贈.

80) 高標: 고결하고 탈속적인 품격 ○勝概: 아름다운 경계

81) 嚮慕: 동경하다. 그리워하다.

82) 繆曰芑의 송축본을 영인한 《李翰林集》 30卷.

83) 搖心: 마음을 설레게 하다.

84) 青楓夾岸: 푸릇푸릇한 단풍나무 양쪽 언덕에 가득하네. 李白<留別曹南群官之江南>의 “요왕의 딸이 순을 찾지만 동정호에 막히고, 푸른 단풍나무만이 상강에 가득하네(帝子隔洞庭, 青楓滿瀟湘.)”에 이와 유사한 용례가 있다.

85) 目斷: 계속 바라보아도 보이지 않다. 李白<當塗趙炎少府粉圖山水歌>의 “마음 설레고 보아도 보이지 않아 흥이 식지 않으니, 어느 때나 삼신산 봉우리에 갈 수 있을 런지?(心搖目斷與難盡, 幾時可到三山巔.)”에 그 용례가 있다.

보랏빛 노을은 마음을 설레게 하고, 푸릇푸릇한 단풍나무 양쪽 언덕에 가득 하네. 눈 닿는데 까지 강을 바라보고, 그대 이번 떠남을 배웅하며, 여러 공들이 강가에 와서 시를 지어 그대에게 드리노라.

3. 해설 및 결론

첫 번째 서문 <夏日奉陪司馬武公與群賢宴姑熟亭序>은 天寶14년(755) 여름 이백이 宣州 司馬인 武幼成과 더불어 當塗縣의 姑熟亭을 노닐면서 쓴 연회 경과의 서문이다.

무유성은 여러 문인들과 고숙정에서 연회를 하면서 이백을 초청하였다. 연회에서 시를 짓고 고숙정의 이름을 명명하였는데, 이백은 이러한 과정을 서문으로 지었다. 내용 가운데는 무유성의 인격과 품덕 및 풍모를 서술하였으며, 문사들이 연회석상에서 시재를 펼치며 시를 짓는 광경을 묘사하였다.⁸⁶⁾

이 서문은 41구 226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으로 분류하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제1단락(通驛公館南有水亭焉~祖遠客之佳境也)은 고숙정의 지리, 형세, 지리적 위치, 건축시말의 과정, 현령 李明化에 대한 정치적 업적, 용도 등을 서술하였다. 제2단락(製置既久~自我作也)은 고숙정의 命名과정을 설명하였다. 제3단락(且夫曹官紱冕者~言詩紀志)은 ‘大賢’과 ‘小才’의 인생태도를 대비시켰다. ‘大賢’은 명리, 영달을 초달하는 삶으로 ‘소요하며 고고한 생활’을 하고 ‘小才’는 이에 구속되는 삶으로 ‘곤궁하고 자기를 구속’하는 태도를 가진다. 때문에 ‘대현’에게 산수자연, 청풍명월이 즐거움의 대상이 되지만, ‘小才’에게는 그것이 쓸데없는 것이 된다. ‘大賢’과 ‘小才’의 삶의 태도를 통해 司馬 武幼成이 ‘大賢’의 풍모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 단락에는 또한 司馬 武幼成의

86) 謝育爭은 이 서문은 詩集 서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시집 서문은 王象 詩歌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문학작품이 되어, 시가와 각자 전해지는 경향이 있어 이 서문은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李白散文研究》, 文津出版社, 1998, 216쪽.

주도아래 당시 문인들이 필봉을 휘둘러 문재를 거루는 정경을 묘사하였다.

이 서문은 문체가 있고 어구의 장단이 엷췌이고 리듬감이 있다. 편쪽은 짧지만 주제가 선명하고 조리가 분명하다. 敍述·抒情·寫景을 함께 융합시켰으며 간결한 四言句의 사용을 주축으로 하였다. 偶句, 對比를 사용하여 언어를 더욱 생동감 있게 하였다.⁸⁷⁾

이 서문은 고숙정의 연회와 관련하여 서술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李白이 추구하는 정신경계, 삶의 지향과 동경을 담았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두 번째 산문 <江夏送林公上人遊衡嶽序>은 이백이 開元 22년(734)에 지은 것으로 衡山으로 유람가는 승려 林公을 여러 사람들이 전송하면서 林公에게 증정하려고 지은 시들의 서문이다.

이 서문은 42구 202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으로 분류하면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락(江南之仙山~亦諷詩於金口)은 林公이 산수의 빼어난 기운 덕택으로 불법에도 정통하고, 문장도 뛰어난 칭송하고 있다. 두 번째 단락(閑雲無心~稀有此者)은 林公이 衡山에 거주하며 일심으로 수도하려고 함을 묘사하였다. 세 번째 단락(余所以歎其峻節~斯亦嚮慕哉!)은 林公이 세속에서 벗어나 이전의 뛰어난 고승들처럼 수도하려고 함을 묘사하였다. 네 번째 단락(紫霞搖心~羣公臨流賦詩以贈)은 여러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 시를 지어 林公에게 증정하는 광경을 묘사하였다.

이 서문은 문자가 정련되어 있고, 내용이 명확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인물의 특징을 그 인물의 신분에게 맞게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서문은 林公의 전송과 관련하여 서술을 진행하면서 智顛禪師와 慧遠 고승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한편으로 李白 자신의 은일에 대한 추구를 드러내고 있다.

87) 謝育爭, 같은 책, 218쪽.

< 參考文獻 >

- 王 琦, 《李太白全集》, 北京: 中華書局, 1977.
- 郁賢皓, 《李白叢考》, 陝西: 陝西人民出版社, 1982.
- 詹 鎡, 《李白詩文繫年》,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4.
- 牛寶彤, 《李白文選》, 北京: 學苑出版社, 1989.
- 安 旗, 《李白全集編年注釋》, 四川: 巴蜀書社, 1990.
- 李 白, 《李太白文集》(宋蜀刻本唐八人集叢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 詹 鎡,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 瞿蛻園·朱金城, 《李白集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 謝育爭, 《李白散文研究》, 臺北: 文津出版社, 1998.
- 郁賢皓, 《李太白全集校注》, 江蘇: 鳳凰出版社, 2015.
- 郁賢皓, 《新譯李白文集》, 臺北: 三民書局, 2017.
- 朱金城, <論李白的散文>, 《李白學刊》第1輯, 1987.
- 林心治, <隋唐五代的巴蜀散文(三)>, 《渝州大學學報》第18卷 第2期, 2001.
- 鄧小軍, <李白從璘前前後後>,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52卷 第5期, 2015.
- 申夏閔, <李白散文譯註(I) — 書類「上安州喪長史書」>, 《中國語文論譯叢刊》, 서울: 중
국어문논역학회, 제16집, 2010.
- 신정수, <李白散文研究>, 서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Abstract >

A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Li bai's <Written in the Gao Shou pavilion at a banquet with various wise men while putting Wu Youcheng, the Minister of War, on a pedestal> and <Written while seeing off Lin Shangren go to Heng Mountain in Jiangxia>

Cho, Deukchang · Cho, Sungchun

This paper translates and explains the two proses of Li Bai(李白). The name

of the first prose is [Written in the Gao Shou pavilion(姑熟亭) at a banquet with various wise men while putting Wu Youcheng(武幼成), the Minister of War, on a pedestal]. This prose is a preface written by Li Bai while hanging around in the Gao Shou pavilion with Wu Youcheng. This prose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agraphs. The first paragraph describes the geography of the Gao Shou pavilion, the shape of the city and the circumstances of its construction, and then describes the political achievements of Li Minghua. The second paragraph describes the naming process of the Gao Shou pavilion. The third paragraph compares the life attitudes between ‘people with high talent and virtue’ and ‘people with low talent and virtue’, then glorifies Wu Youcheng’s literary talents and encourages the writers to build good work.

The name of the second prose is [Written while seeing off Lin Gong(林公) go to Heng Mountain in Jiangxia]. This prose is a preface to the acquaintance who travels a long way. This prose can be divided into four paragraphs. The first paragraph is a praise of Lin Gong, who is not only familiar with Buddha Dharma because of his outstanding spirit of mountaineering, but also because he writes outstanding sentences. The second paragraph describes that Lin Gong resided in Heng Mountain and how he tried to practice asceticism wholeheartedly. The third paragraph describes Lin Gong departure from the mundane world and its attempt in serving as well as the previous eminent monks. The fourth paragraph depicts a scene where several people gathered on the river, wrote a poetry and presented it to Lin Gong.

Key words: Translation, Annotation, Li Bai, Prose, Gao Shou Pavilion, Wu Youcheng, Lin Gong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8. 1. 29.	2018. 3. 9	2018. 3. 16.	2018. 3. 19.	2018. 3. 31.